

환율 직격탄... 기름값 3년만에 2000원대

광주 첨단 등 5곳...전남 목포·순천 등 7곳 평균 1940원대...공급가 올라 당분간 상승세

환율상승으로 석유제품 수입가가 높아지면서 휘발유 판매 가격이 8월 2000원대를 넘어선 주유소가 광주·전남에 3년만에 다시 등장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의 오픈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첨단삼진주유소가 보통휘발유를 8월 2023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하남제일주유소도 8월 2022원에

가격을 고시했다. 북구에서는 양산주유소가 2015원, 광주주유소와 일곡제일주유소가 2004원에 판매해 모두 5곳의 주유소가 8월 2000원대를 넘어섰다. 전남에서도 광양시 태인동의 광남주유소가 8월 2044원에 판매중인 것을 비롯, 목포시와 순천시, 여수시 등 7곳의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8월

2004~2044원에 고시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보통휘발유 가격이 8월 2000원대를 넘어선 주유소가 있었지만 이 주유소들은 모두 SK폴을 단 주유소들로, 정유사들의 가격 인하 조치 기간 SK에너지는 판매가 인하나 아닌 신용카드 100원 할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는 100원이 더 낮았다. 27일 광주지역 보통휘발유 8월 평균가격은 1945.49원으로, 지난 1일 1906.68원에서 27일 만에 38.81원이 나 뛰어올랐다. 이 기간 휘발유 가격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상승을 거듭했다. 전남지역도 지난 1일 1917.96

원에서 27일 1943.15원으로 25.19원이나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 평균가격도 같은 기간 광주는 8월 1714.16원에서 1739.05원으로, 전남은 1720.97원에서 1738.03원으로 각각 24.89원, 17.06원 상승했다. 이처럼 급격한 기름값 상승은 최근 국제경기약화로 인한 환율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달 초 108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200원대 가까이 오르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제품류 단가 인상의 주원인이 됐다.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2주 전 국제

제품 가격에 환율을 더해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한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휘발유 공급단가는 1901원으로, 2주 전 1870원대에서 30원 가량이나 올랐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관계자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공급가도 올라가 기름값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국제 경기 영향으로 석유제품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환율 인상이 없으면 기름값은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원화 두달새 12% 절하... 물가 '빨간불'

원화 가치가 최근 두 달 새 달러화에 대해 12% 절하되면서 절하율이 세계 주요 21개국 통화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인 연 4.0%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26일 현재 1,195.80원으로 두 달 전인 7월 26일의 1,051.10원에 비해 12.1% 절하됐다. 두 달간 달러화 대비 절하율은 원화 가치가 한은 ECOS에 등재된 주요 21개국 통화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유로화에 달러화 대비 절하율은 6.3%로 원화 절하율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과 운드의 절하율은 5.2%를 기록했다. 아시아 통화 중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는 각각 2.2%와 0.9% 절상됐으며, 홍콩달러는 0.1% 절하되는데

그쳤다.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태국 바트는 2.9%와 3.8% 절하됐으며, 싱가포르달러와 말레이시아 링깃은 6.8%와 6.1% 절하됐다. 한국 원화를 제외하고 절하율이 10%를 넘는 통화는 호주달러(10.4%)와 뉴질랜드달러(11.2%), 스위스 프랑(11.0%) 등 3개 통화였다. 원화의 절하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한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외화 유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 국가 중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비교적 발달해 있어 투기적인 거래가 활발한 점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두 달 새 원화 절하율이 10%를 넘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는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0.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영향 생필품 77종 가격 올라

배추 등 채소류 인상폭 커
지난 8월에 집중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생활필수품 10개 중 7개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의 급등세가 심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월에 102종의 생필품 가운데 77종(75.5%)의 가격이 전월 대비 올랐다. 이는 집중 호우가 몰아닥친 7월에 전체 생필품 중 64종(62.7%)의 가격이 올랐던 것보다 무려 13종이나 늘어난 셈이다. 반면 8월에 전월 대비 가격이 내려간 생필품은 21종(20.6%)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산행, 발끝부터 옛지있게~ 27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다양한 색의 버클리 등산화를 선보였다. 최근 인기그룹 '빅뱅'이 착용해 유명해진 이 등산화는 북고풍 워커 스타일에 아웃도어의 기능을 더해 젊은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소비자는 우울하다

전달보다 심리지수 1P·생활형편전망 2P 하락

광주·전남지역민들은 현 경제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전남지역 도시에 사는 35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9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의 소비심리지수는

100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또 6개월 전과 비교한 9월의 현재 생활형편CSI는 84로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6개월 후의 생활형편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CSI는 93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6개월 후의 가계수입을 예상하는 가계수입전망 CSI(97→94)는 3

포인트 하락하고, 6개월 후의 가계지출을 예상하는 소비지출전망CSI(108→110)는 2포인트 상승했다. 9월 중 현재경기판단CSI(64→61)는 전달보다 3포인트, 향후경기전망CSI(78→75)도 3포인트 떨어졌다. 향후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수준(67%), 수출·환율 등 대외요인(15%), 고용사정(8%), 국내소비(5%) 순으로 답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크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은,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임을 의미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군지역 고용률 신안 전국 1위

진도 3위·해남 4위...市에선 나주 1위

신안과 진도, 해남 등의 고용률이 전국 군(郡)지역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6개 시·군 가운데 시(市)지역(75개) 평균 고용률은 58.1%, 군(郡)지역(81개)은 66.8%로 조사됐다. 전남의 군지역 고용률은 70.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전남 시지역은 59.1%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웃돌았다. 신안군은 77.7%의 고용률을 기록, 1분기에 이어 전국 시·군중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군별 고용률에서는 진도군(76.4%)과 해남군(75.9%)이 상위 3, 4위를 차지했다. 시별 고용률에서도 나주시(69.8%)가 1분기 수위였던 제주 서귀포시(67.3%)를 누르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전남 군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것은 농림어업 비중이 높고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고령(55세 이상) 취업자


비율은 전남의 시 지역 비중이 26.6%인 반면 군 지역은 49.4%였으며 여성취업자 비중도 군 지역이 47.2%로 시 지역(41.2%)보다 높았다. 특히 고령군은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5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금근로자가 많은 시 지역의 취업자는 정년과 조기퇴직으로 고령층의 근로환경이 어렵지만 농림어업 부분의 경제활동이 많은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령층과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높다"며 "전남지역은 다른 군지역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은데다 농어업을 겸한 지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남 시지역과 군지역의 실업률은 각각 2.0%, 0.7%로 시지역은 제주 1.9%, 군지역은 경남 0.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전남지역의 고용률은 높았지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함평군이 22.8%로 순창군(2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한편, 신안군과 목포시의 고용률은 각각 77.7%와 56.2%로, 21.5%포인트로 전남지역 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호남권 위폐 유통률 전국 최저


373장 263만원 전체 4%...서울 47.5%·강원 28.3%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유통된 위폐 수와 금액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민주·여수갑)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유통된 위폐 장수는 모두 9298장, 액수는 6602만5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호남권에서 유통된 전체 위폐는 373장, 262만8000원으로 장수와 액수 모두 전체에서 4%를 차지했다. 호남권의 신권 위폐 수는 80장으로 전체의 2.4%, 금액은 111만6000원으로 전체의 3.2%를 각각 기록했다.

전체 위폐의 금액면에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7.5%(3141만9000원)로 가장 많았고 경기·강원권 28.3%(1865만4000원), 충청권 10.8%(716만원), 영남권 8.9%(588만3000원), 호남권 4%(262만8000원), 제주권 0.4%(28만1000원)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발견된 장수보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여 고액권 위폐 위폐 제조와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경제 약화의 영향을 지방이 먼저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세계경영연구원



위기 극복 특별 강연

12,000명 CEO의 스승, 전성철 박사가 전하는
**경제위기의 먹구름을 헤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5가지 공식**

경제 위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혹독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생존'을 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실천해야 할 5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전성철 박사가 대표님을 초대합니다.

IGM 회장 전성철

특별강연 안내

일시 : 2011년 10월 5일 (수) 저녁 6시
장소 : 호텔 무등파크 4층 다이아몬드 홀 (동구 지산동 소재)
참가대상 : 기업의 CEO, 임원 및 전문직 중사자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2,3세 경영자
참가비 : 무료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전화 신청

www.ahaceo.org

신청문의
02)2036-8530, 8588